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

(정동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6
----------	-----

발의연월일 : 2023년 12월 6일

발의자 : 정동혁 · 박재용 · 최종현
박옥분 · 김미숙 · 김동규
황세주 · 김재훈 · 이인애
김일중 · 오지훈 · 임창휘
김광민 · 장민수 · 문승호
장한별 · 박진영 · 유경현
오석규 · 최효숙 · 전석훈
김태희 · 박상현 · 변재석
전자영 · 이기환 · 문형근
박세원 · 김창식 의원
(29명)

1. 주 문

- 한국수어를 농인들의 이중언어로 인정하고, 농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함.
-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 농학생 교육 실태조사의 실시를 건의함.
- 보편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행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장애유형별로 특화하여 수어 등 농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교육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함.

2. 제안이유

-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며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았으나, ‘듣고 말하기’ 중

심의 농교육으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농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기에는 보편성에 기반한 특수교사 양성체계에 따른 수어 가능 특수교사의 부족, 시·청각장애 등 소수장애인이 소외된 특수교육 정책 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 이에 농교육 실태조사와 전문 특수교사의 양성 등을 통해 농학생들의 한국수어 이중언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건의안 : 덧붙임

- 4. 이송기관 : 대한민국 국회(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무총리실,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기도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며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았다. 더불어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농인들에게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했다.

그러나 농교육 현장에서 한국수어 교육의 위상은 법이 제정될 때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현재 학교와 사회는 농학생들에게 수어보다 ‘듣고 말하기’를 가르치려고 하고, 인공와우와 보청기 등 청각보조 장치를 활용하여 청인처럼 소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인이 인공와우 수술 후 청각적 언어이해력을 가지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후 얻게 되는 ‘듣고 말하기’ 능력 역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1언어로,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하여 읽기 및 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이중언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특수학교 등 농교육 현장에서 교사 등의 전문성 부재로 이 같은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특수교사 양성은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없이 보편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들이 수가 많은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어를 포함하여 농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피해는 온전히 농학생들의 몫이다.

이처럼 농교육 현장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발달장애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정책만을 내놓을 뿐이며, 농학생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60%에 달하는 일반학급 농학생들은 수어통역과 자막, 속기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라 학교에 수어통역사들이 배치되고, 40여 개 주에서는 2015년부터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해 교과목으로 채택했다. 또 영국과 일본의 일부 농학교에서도 수어와 구화 이중언어로 농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청인과 마찬가지로 농인 역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어를 농인들의 이중언어로 인정하고, 농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농교육 정상화를 위한 농학생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특수교육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수어 등 농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를 양성·배치하라.

2023. 12. 21.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